

초·중·고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반토막

도의회, 새해 사업물량 50% 축소 조정
교육청내 직장어린이집 설립도 급계동
29일부터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 심사



전라북도교육청

정성학 기자 csh@sbnnews.com

■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내 초·중·고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비가 반토막 났고 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설립사업은 급계동 걸렸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총 3조 8,598억 원대로 약 27억 8,222만 원이 삭감됐다. 문제의 사업은 모두 22건이 지목됐다.

대표적으론 초·중·고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문제로 꼽혀 전체 사업비 38억 8,800만원 중 49%(19억 1,400만원) 가량이 삭감됐다.

달달아 내년도 사업물량도 전체 66개교에서 33개교로 반토막 났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추경안을 통해 도내 73개교에서 시범 추진해왔는데 그 완공 사례가 전무한 탓에 실효성이 있는지, 사업물량 추가 확대시 일선 학교들이 그 관리능력이 있는지 등이 의문시된 결과다.

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설립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본청 1층 빈공간에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6억 1,800만 원을 편성했다. 개원 예정일은 내년 9월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위는 직원들 업무시설과 보육시설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으며 제동 걸었다. 그러면서 전북도 사례처럼 본청 바깥쪽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업무시설과 보육시설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사업 다수가 이런저런 문제가 논란 되면서 사업비가 부분 삭감됐다.

김희수 교육위원장(전주6)은 “오랜 시간 한해 살림을 계획하느라 고생하신 것을 잘 알지만 이번엔 지리적 예산서의 부족함과 개선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청에 주문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29일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마지막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 상정은 다음달 13일로 잡혔다.



대선 D-100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100일(11.29)을 앞두고 주말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쳐 눈길 끌었다. 투표하는 모습의 석고미인 퍼포먼스와 포토존을 설치해 아름다운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정성학 기자·사진=전북선거관위 제공

박지성 “축구로 전북홍보 앞장”

전북도-전북현대 상생협력 다짐

한국축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 전북현대모터스 FC 클럽어드바이저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만나 양 기관간 우호 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박 어드바이저는 지난 26일 도청을 방문해 송 지사와 환담하고 전라북도와 전북현대모터스간 상생할 수 있는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현대대는 지난해 리그 통산 8번째 우승을 거머쥔데 이어 FA컵 우승까지 차지하며 더블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가 각종 매체에 노출될 때마다 전북에 대한 관심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송 지사와 박 어드바이저간 환담 자리도 이 같은 점이 고려됐다.

2014년 현역에서 은퇴한 박 어드바이저는 국제축구연맹(FIFA) 마스터 코스에서 행정가 수업을 받았고 국제축구평의회 자문위원과 대한축구협회 유스전략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업무에 밝은 디디었다. 올 1월부터 전북현대 클럽어드바이저로 활약하며 프로와 유소년 선수 선발, 훈련시스템 제시 등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도 일정부분 하고 있다.

박 어드바이저는 환담 자리에서 “문화예술의 도시인 전북과 손을 잡고 프로축구를 통해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에 “박지성 어드바이저의 활동을 크게 환영하며 전북 축구 활성화는 물론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한 전북 알리기에 앞장서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새만금 개발사업 착공 30주년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지 중 가장 빨리 개발된 군산시 내초동 5호 방조제 앞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를 모습.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전체 9개 공구 중 현재 2곳이 완공된 상태다. /정성학 기자

새만금 개발 30년, 옥토에서 K뉴딜 허브로

도로, 항만, 공항, 산단 등 SOC 개발 가속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기업 입주도 꼬리
환경훼손과 행정구역 분쟁 등 미완의 과제도
국가 차원의 해결책과 보다 과감한 투자 절실

새만금 개발사업이 28일 착공 30주년을 맞았다. 수십년간 반복돼온 환경훼손 논란과 행정구역 분쟁 속에 추진돼온 새만금 개발사업, 현재 어디까지 왔고 과제는 뭘지 살펴봤다.

▲간척지 개발사업 본궤도

새만금 개발사업은 2010년 방조제 준공, 2013년 새만금개발청 출범,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과 함께 내부 개발사업도 본격화 됐다. 최근 들어선 그 가속도까지 붙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물류 대동맥인 동서도로가 준공되며 이어 남북도로와 신항만 건설공사도 한창이다. 국제공항 또한 국제사업화가 확정돼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첫 도시개발인 수변도시 건설사업 또한 작년 말 착공했다. 가장 빠른 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9개 공구 중 2곳이 완공돼 전기차주차 제작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등 기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자연스레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다.

▲옥토에서 K뉴딜 허브로

정부는 올 2월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

면 수정해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30년간 시대적 요구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초 새만금은 새로운 만금평야(萬金, 만경·김제평야)란 그 이름처럼 전체 간척지 72%를 농업용지로 사용토록 계획했다. 하지만 새로운 개발계획은 농지는 30%로 줄이고 70%는 미래 신산업을 비롯해 관광과 도시 등 다목적 용도로 개발토록 변경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할 이른바 K뉴딜 중심지로 개발토록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오는 205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단계별 개발계획까지 처음으로 명문화 했다.

그만큼 지역사회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환경훼손 논란은 과제

반면, 거친 법정분쟁 속에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온 환경훼손 논란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전북녹색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28일 새만금 착공 30주년 성명을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그린뉴딜과 해양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해수 유통량 확대와 국제공항 건설사업 백지화” 등을

기대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맞붙어 지리한 법정공방을 펼치며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도 방조제에서 내부개발 사업지로 확대되고 있다. 작년 말 준공 개통한 동서도로가 그 첫 도마에 올랐다.

동서도로는 김제 심포항과 새만금 신항만을 잇는 첫 간선도로이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시작부이기도 하다.

앞으로 수변도시와 관광용지 등 내부개발 사업이 확대될 수록 그 분쟁지 또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더 큰 난제다.

▲국가적 관심과 투자 절실

자연스레 그 해결을 위해서 보다 큰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란 명성을 무색케 지역사회 기대치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새만금은 전체 간척지 409㎢ 중 담수호(118㎢)를 제외한 291㎢를 개발토록 계획했지만, 현재 그 부지 조성이 완료됐거나 공사중인 사례는 전체 43%(12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권이 7번이나 바뀐 3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다는 비판이다. 앞으로 30년간 더 기다려야만 그 준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환경훼손 논란과 행정구역 분쟁을 종식시킬 특단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그 중심엔 지난 30년간 반복돼온 다름 속에 어렵사리 본궤도에 오른 내부개발 또한 발목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다. /정성학 기자



전농 “쌀값하락 조장 정부규탄”...나라적재 투쟁선포

도내 농민들이 정부가 쌀값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지난 26일 전북도청 광장 앞에서 나라적재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정부와 농민단체는 ‘쌀 목표가격’과 ‘변동식물금’을 폐지하면서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올가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계다가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을 농산물과 쌀값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부와 다를바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농민을 협박하고 거짓말 일삼는 기재부장관과 농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에 명시한대로 초과 쌀 생산량 30만 톤을 즉각 시장격리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북도도 대규모 병충해 피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정성학 기자

허남주, 국민의힘 조강특위 위원 위촉

국민의힘 허남주(사진)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북도당은 지난 25일 열린 제4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강특위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협위

원장이 공석인 지역구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위해 설치됐다.

위원장은 권성동 사무총장, 위원으로 허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윤한홍 전략기획부총장(경남 창원마산 국회의원), 박성민 조직부총장(울산 중구 국회의원), 주광덕 전



국회의원, 박정하 전 대통령실 대변인,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가 위촉됐다.

한편, 허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은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나와 IBK 연금보환 부사장과 전북도의

원 등을 역임했다.

/정성학 기자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실어드리는 공익광고입니다.

WISE Foundation

‘당신의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010-9220-8545 ✉ chosite8545@hanmail.net 🌐 wise4060.modoo.it